터 키

IMF와 100억 달러의 신규 대기성차관 추진

터키 정부는 IMF와 100억 달러에 달하는 신규 대기성차관 공여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8일 IMF 이사회는 2002년 말로 끝나는 기존 계약에 따라 31억 달러 상당의 제4차 자금인출을 승인하였으며[1], 12월 초에는 IMF 실사단이 앙카라에 도착하여 터키의 경제상황과 IMF의 경제안정화계획 실행여부를 점검하였다. 실사단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신규 대기성차관의 계약이 조만간 체결될 것으로 보인다.

계약이 체결될 경우 신규 차관은 정부의 국내채권 상환에 쓰이게 되며, 그에 따라 정부의 재정자금 조달수요가 그만큼 감소하고, 은행들의 기업에 대한 여신지원 증가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민간부문의 자금조달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또한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8%를 기록할 만큼 극도로 위축된 터키 경제가 어느 정도 회생하는 데 적지 않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터키는 2002년에 상환기일이 도

〈표 1〉 IMF의 對터키 신용공여 내역[주]

시 기	신용공여 내역	비 고
1999. 12	36억 달러(29억 SDR)의 대기성차관 계약 체결	신용공여 합계: 190억 달러 인출액: 117억 달러 미인출 잔액: 73억 달러
2000. 12	73억 달러(58억 SDR)의 Supplemental Reserve Facility 계약 체결	
2001. 5	대기성차관 금액 81억 달러(64억 SDR) 증액	
2001. 12	100억 달러(79억 SDR)의 신규 대기성차관 계약 추진	

주: 2001년 11월 말 기준임.
자료: IMF.

1) IMF의 자금지원이 확실시되자 11월중 이스탄불 주가지수는 23% 상승하였으며, 리라貨 가치도 10% 회복되었음.

래하는 IMF 차관 50억 달러도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차관으로 대체하기를 바라고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IMF의 반응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IMF, 터키의 경제안정화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

IMF의 제10차 터키 경제 검토보고서는 터키에 대한 신규 대기성차관 지원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앤 크뤼거 IMF 부총재도 은행산업 구조조정의 성공적인 진전[2], 은행감독청의 설립과 활동 성과, 국영은행들의 빠른 구조조정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하였으나, 민영화가 더 진척되고 기업환경도 보다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하였다.

한편, 터키 정부는 지난해 11월 말 IMF에 제출한 의향서(letter of intent)에서 IMF와 협의한 정책조치 29개중 24개 항목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정책목표는 2001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IMF는 터키의 경제조정이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고 성과에 만족한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불안요인 남아 있으나, 아르헨티나와 차별화

IMF가 추가 차관을 지원한다 해도 터키는 여전히 많은 장애를 안고 있다. 특히, 사이프러스를 둘러싼 그리스와의 갈등, 인구의 약 1/5을 차지하는 쿠르드족의 자치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 지속, 취약한 현 연립정권과 반개혁 정당의 집권 가능성 등 국제관계와 국내정치 부문

〈표 2〉 IMF의 터키 경제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

○ 터키 정부는 경제개혁 프로그램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상태는 크게 개선되었음.
-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및 투명한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법 개정이 예정됨.
- 전화회사, 항공사 등 대형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됨.
- 은행산업 구조조정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 지난해 8월 이후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이 기대되었으나, 미국의 테러사태의 여파로 더 강력한 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임.
- 채무상환을 제외한 기초재정수지에서 큰 폭의 흑자가 요구됨.
- 은행산업 개혁, 공공부문의 엄격한 관리, 민간부문 발전 등에 집중하여야 함
- 예산외 기금의 폐지, 공공부문 구매입찰법 개정, GNP 대비 기초재정수지 흑자비율 목표를 6.5%로 설정해야 할 것임
- 농업보조금 개혁, 공공부문의 고용 축소와 임금 억제 등

○ 재정상태를 더 개선하고 인플레이션을 더 낮추며 은행산업의 남아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터키 경제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플레이션의 항구적인 퇴치를 위한 단계로 들어가며 정식 인플레이션율 목표가 설정될 수 있을 것임.

자료: IMF 보고서 요약

2) 저축예금보험기금은 1997년 이후 19개 은행을 인수하여, 2001년 중 6개를 매각하고 7개를 합병하였으며 2개는 폐쇄하였음. 이로써 이들 은행들의 관리비가 월 1억 1,500만 달러에서 2,200만 달러로 감축되었음. 나머지 4개 은행은 2001년 말까지 매각하지 못하면 청산될 예정임. 지금까지 정부가 은행산업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투입한 자금은 20억 달러에 이르며, 은행 수는 79개에서 67개로 줄었음.

에 많은 불안요인이 남아 있다. 또한, 금년도 하반기에는 세계 경제와 터키의 주요 시장인 유럽 경제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전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세계 각국 경제의 회복시기에 대해 엇갈린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 리라貨 가치 불안, 금융시장 불안정 등이 진정되지 않으면, 금년도에 외채원리금 상환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터키가 다시 경제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형편이다.

IMF는 미국 테러사태의 여파로 인한 관광수입 감소와 경제위기에 부수되는 경제 위축 등의 원인으로 경제위기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터키에 100억 달러의 추가 차관을 지원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터키가 IMF로부터 추가 지원을 거부당한 아르헨티나와는 확실히 다른 상황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실 지난해 여름까지만 해도 미국은 터키에 대한 IMF의 계속되는 지원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국에게 對아프가니스탄 전쟁수행에 있어 터키가 갖는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터키에게는 긍정적 효과를 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금융부문에서 상당한 진척을 보이고 있는 터키의 구조조정이 더욱 진척되어 아르헨티나 이외에 더 이상의 불안 확산을 원치 않는 국제금융계의 바램도 터키의 신규 대기성차관 요청이 큰 어려움 없이 받아들여지게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말 네덜란드의 ABN AMRO Bank 등이 주선한 신디케이션이 터키의 재벌그룹 Koc Holding에 1억 5,000만 달러의 대출을 공여한 것[3]도 국제금융계가 터키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康 峻 秀】

3) 2001년 중 터키 기업이 성공한 첫 유로 달러 차입으로, 2001년 11월 23일 발표된 이 리파이낸싱 용도는 1년 전에 도입한 2억 5,000만 달러 차입의 상환이며, 이자율은 Libor에 1.5% 포인트를 가산한 것임.